

BP, 1/4분기 순이익 63% 급증

Shell은 25% 증가 90억8000만달러 ... 생산정체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석유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

유럽의 석유 메이저 Royal Dutch Shell과 BP(British Petroleum)는 4월29일 각각 기록적인 1/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Shell의 순이익은 2007년 1/4분기 72억8000만달러 대비 25% 증가한 9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고, BP도 76억2000만달러로 2007년 1/4분기 46억6000만달러보다 무려 63% 증가했다.

재고와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Shell이 78억5000만달러, BP가 64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8억8000만달러와 52억6000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석유제품 생산이 정체되거나 약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 고유가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hell은 1/4분기 생산이 하루 344만배럴로 1% 늘어나는데 그쳤고, BP는 391만배럴로 정체상태를 기록했다.

미국 3위의 석유기업인 ConocoPhillips도 1/4분기 순이익이 41억4000만달러로 17% 증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30>